

농부가 된 청년들...광주 '도시 귀농' 인기

지난해 농협 조합원 신규 가입 201명 광역시 최다...올 들어 50명 유입 스마트팜·로컬푸드 직매장 등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연계해 각종 지원

지난 한 해 광주 청년 농협 조합원이 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도 광주에는 50명에 달하는 청년 농부가 유입되며 '도시 귀농'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9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만 45세 미만 청년 조합원 신규 가입자는 201명으로, 전년 142명에 비해 41.5%(59명) 증가했다. 광주 청년 조합원 수는 871명에서 927명으로, 6.4%(56명) 늘었다.

7개 광역시 청년 조합원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846명으로, 광주는 이 가운데 4분의 1 가량(23.8%)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신규 가입자 증가율 역시 광주가 41.5%로 가장 높고, 울산 4.8%(7명), 인천 3.7%(5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23.5%·32명)과 대전(-21.2%·22명), 대구(-15.8%·15명) 등 3개 특·광역시는 오히려 신규 조합원 수가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청년 조합원 수는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했다.

서울 청년 조합원은 전년보다 49명(-5.1%)이나 줄어든 907명을 나타냈다. 대구(-41명)와 인천(-37명), 울산(-17명), 대전(-14명), 부산(-12명) 등 나머지 도시도 조합원 수가 줄었다.

지난 4년 동안(2017~2020년) 광주에서는 청년 조합원이 연 평균 150명씩 증가해왔다.

2017년에는 103명의 청년 농부가 조합원에 이름을 올렸고, 2018년 154명, 2019년 142명, 2020년 201명 등이 신규 가입을 했다.

올해 들어서는 전국에서 3948명에 달하는 청년 농부가 농협에 새로 가입했다.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1위, 전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를 차지했다.

올해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광주에서는 50명의 청년 조합원이 신규 가입했다. 이는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로, 인천(31명), 울산(27명), 서울(23명), 대구(22명), 대전(15명), 부산(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신규 가입자 수는 607명으로, 경북(627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남과 경북



강형구(가운데) 농협 광주지역본부장과 청년 조합원들이 지난 6일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농업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다음으로는 전북(510명), 경기(502명), 충남(462명), 경남(355명), 제주(261명), 충북(235명), 강원(207명) 순이었다.

지난 4월 말 기준 청년이 전체 조합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전남 3.9%·광주 4.1%로 집계됐다.

전남 조합원 28만8107명 가운데 3.9%에 달하는 1만1233명이 청년층이었다. 광주는 2만1396명 중 868명이 청년 조합원이다.

16개 시·도 가운데서는 제주가 7.5%(8만2046명 중 6161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서울(각 4.9%), 광주·경기(각 4.1%), 전남(3.9%), 충남(3.4%), 부산(3.3%), 강원·충북(각 3.2%), 경북·울산(각 3.1%), 경남·인천(각 3.0%), 대전(2.7%), 대구(2.4%) 순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와 각 지역본부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자연 이탈)를 막기 위해 청년 조합원 모집에 팔을 걷어 부쳤다.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6일 청년 조합원·창업농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시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를 광주시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열었다.

청년 농업인들은 광주시와 연계한 각종 지원사업을 소개 받고 스마트팜 경영실습과 로컬푸드 직매장 견학 등을 했다.

전남지역본부도 최근 '청년조합원 확대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청년 조합원 증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형구 광주지역본부장은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면 경제사업 이용, 출자금 및 이용고 배당, 영농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 증대와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축협 하나로마트, 수익 기부 '착한 가게' 동참



광주축협(조합장 김호상·왼쪽 세번째)과 월산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7일 남구 월산동 하나로마트 앞에서 '착한가게 현판식'을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남구 월산4동 15호 현판식

광주축협이 매달 하나로마트 수익 일부를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는 '착한가게'에 동참한다.

광주축협은 지난 7일 남구 월산동 하나로마트에서 '착한가게 15호점 현판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축협은 월산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 '착한가게' 지정을 받아 매달 수익 일부를 정기 후원하게 된다.

김호상 조합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들 수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고효율 펌프로 양수장 온실가스 감축한다

새만금 양수장 3곳에 추가 설치 농어가 외부사업 등록 지원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양수장 펌프를 본격 도입한다.

공사는 일반 양수장에서 사용하는 펌프를 인버터 방식 펌프로 교체해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방법을 실행하고, 농어가 외부사업 등록을 지원하는 등 농어업분야 탄소감축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새만금 동진양수장에 인버터 방식의 부스터 펌프를 시범 도입해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기존 일반펌프는 급수기에 농업용수 사용량과 관계없이 하루 평균 12~14시간 가동되는 방식이

다. 반면 고효율 펌프는 수로의 압력을 감지해 사용한 농업용수만큼 물이 다시 채워지는 방식이다.

고효율 펌프는 필요할 때만 가동되는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벌이는 동진양수장의 경우 연간 약 200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효율 펌프 사용이 온실가스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방법론이 정식 등록될 경우, 농업기반 시설을 활용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공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우선 공사는 새만금 양수장 3곳에 고효율 펌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800t 규모다. 20년 생 참나무 50ha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같은 수치다.

공사는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이용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축을 시행했을 때 감축량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부여받는 제도다. 배출권 거래를 통한 농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등록된 외부사업은 히트펌프를 이용한 김연조 가공시설과 새우양식장으로 각각 연간 714t, 721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지난 3월 ESG 경영 선포식 이후 기업의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어버이날' 광주·전남 농협, 고령 농업인 나눔 행사

광주 농산물 꾸러미·카네이션

무안 150가구에 돼지고기 등 전달

농협 지역본부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광주·전남에서 고령 농업인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6일 대촌농협 관할 지역 농가를 찾아 고령 농업인에 농산물 꾸러미와

카네이션을 전했다고 9일 밝혔다.

농산물 꾸러미는 홍삼 건강기능식품과 삼계탕·추어탕 등 간편식, 잡곡, 장류 세트 등으로 구성됐다. 총 1000만원 상당인 이 꾸러미는 광주 고령 농업인 100여 명에 전달됐다.

광주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 모임이 줄어든 고령 농업인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사)나눔축산운동본부, 목포무안신안축협, 농협 무안군지부도 '가정의 달'을 맞아 돼지고기 500kg 나눔행사를 열었다.

행사 주제는 '5월의 사랑이야기! 더 따뜻한 행복 나눔'으로, 돼지고기는 고령 농업인 등 150여 가구에 전해졌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영양만점인 우리 축산물이 훌륭 여르신이 면역력을 강화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협과 축산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돕는 일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